

신당 지방선거 기획단 발족 ▶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주 주거용 건축물 73%가 아파트 ▶8

[kwangju.co.kr](http://kwangju.co.kr)

월드컵 D-100…홍명보의 선택은? ▶15

제19690호 1판 2014년 3월 5일 수요일 (음력 2월 5일)

## 호남고속철 2단계 2020년 완공도 어렵다

(송정~목포 구간)



### 기본계획 수립조차 안돼 착공시기 불투명

### 국토부 “노선 결정까지 오랜 시간 소요”

무난하게 달리던 호남고속철도가 들어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맞았다.

광주 송정~목포 구간인 2단계 사업이 2012년 기본계획 변경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2017년 준공이 사실상 힘들어 졌고,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저속철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3면>

4일 국토교통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예산으로 올해 40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착공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예정대로 2017년 완공을 위해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본계

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7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2020년에도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2012년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면서 국토부가 2009년 4월 16일자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고시를 변경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광주 송정~목포 구간과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에 나섰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안타깝지만 응여결과를 놓고 관련자체와 논의한 뒤 노선을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전국에 고속철도망이 속속 깔리고 있는 미망에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 계획했던 신선을 서둘러 설치하고 지선 형태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전반에 대한 지역 내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처럼 2단계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준공 시점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1단계(오송~송정)의 종착역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불거져 저속철 우려를 낳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보자들이 노선 경유 및 정차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나주에서는 정차 횟수 증설을 요구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광주에서도 국토부가 이미 송정역의 고속철도 일원화 방침을 결정했으나 지역 내에서는 광주역 존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지원 의원 전남지사 출마 ‘가닥’

전남도지사 선거 참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지사 선거 구도가 요동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 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과 바 의원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일 신당 창당 발표 후 측근들과 논의를 하고 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은 뒤 최종 지역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1주일 가량 지역을 돌며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이는 출마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아직 아무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저는 그런(출마) 말씀도 안 꺼냈는데, (높은) 지지도를 보내주니까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며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중앙 정부와 전남도의 창조적인 일을 할 최고의 후보가 나오는 것이 도민에 대한 애우다”며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실감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다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비중 있는 정치를 했는가도 봐야 한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먼저 선언하고 뛰어나니는 게 (기준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하지 않던 기존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특히 “전남지사로 마지막 나의 정치 열정을 불태우고”, “지도자는 잔

인한 결정을 해야 하고”라고 말하는 등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출마”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출마를 감행할 경우 ‘거짓 정치’가 된다는 비판 속에 박 의원의 출마 이후 과장을 분석하며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 구간의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2017년 완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막바지 공사 중인 호남고속철도 전북 정읍시 흥룡터널 구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 300 4 MATIC Avantgarde 출시  
062)226-0001  
 Mercedes-Benz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http://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서울 삼성동점 (삼성동 삼성빌딩 9층) | (02)2276-0667 ~ 9 강남점 (강남구 고속터미널 앞) | (02)3477-5110 총호21점 (금강제화 앞) | (02)733-0229 송파점 (선흥역 2번 출구) | (02)419-3349 경기 인천점 (구. 시화관 앞) | (02)421-2238 부평점 (부평역) | (02)857-5110 수원점 (남분로 161) | (031)846-5110 용인점 (용인내거리) | (031)368-1039 오산점 (오산읍 국정로 20) | (031)378-4189 부천점 (부천대교앞) | (02)299-4400 남양주점 (남양주 1000호) | (031)563-9903 부산 사천점 (사천로 19) | (051)268-2200 광주점 (광주광역시) | (02)268-2288 경남 마산점 (마산 1000호) | (051)297-6060 진주점 (진주로터리) | (051)745-9670 대구 동인점 (동인네거리) | (053)425-1511 남일점 (남일로 150) | (053)25-7575 경북 포항점 (포항로 104) | (054)244-5110 인천점 (구. 인동동 고내거리) | (064)859-2246 광주 광주점 (광주로 47) | (062)225-5110 광주점 (백운광장) | (062)651-4477 전주점 (전주시) | (041)838-5600 남원점 (제부시장 104) | (063)632-2626 대전 대전점 (대전) | (042)255-4900 대구 대구점 (대구로 104) | (041)552-2888 골산점 (골산로 104) | (041)832-5110 충주 청주점 (청원로 104) | (043)82-1414 강원 강릉점 (강릉오거리) | (033)647-0568 춘천점 (춘천광장) | (033)253-5110 제주 제주점 (제주로터리) | (064)753-4358 고속 익은편: 043)222-1177-8 충주점 (삼원로터리) | (043)852-1414 강원 강릉점 (강릉오거리) | (033)647-0568 춘천점 (춘천광장) | (033)253-5110 제주 제주점 (제주로터리) | (064)753-4358

